

토론 요약문

2014년 6월 26일-27일 전주, 대한민국

기록 및 정리 : 다니엘 조셋

세션 1 토론

토론 진행에 앞서 좌장을 맡은 디에고 그라디스(Diego Gradis) 스위스 '내일을 위한 전통' 대표는 카르마 폰초(Karma Phuntsho) 부탄 문화기록연구소 대표의 이번 국제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베르나르 구리(Bernard Guri) 가나 원주민지식개발센터 대표가 조앤 오르(Joanne Orr) 스코틀랜드박물관협회 대표에게 NG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어떤 여건과 환경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앙투안 고티에르(Antoine Gauthier) 캐나다 퀘벡무형문화유산카운슬 대표에게는 퀘벡의 NGO는 연구 이외에 어떤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질문했다.

구리 대표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회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대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토착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며, 이는 문화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업 세계무술연맹 사무차장은 고티에르 대표에게 퀘벡에서 열린 워크숍과 유사한 형태의 워크숍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위해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의 자질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무총장 단독으로 전문가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공동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오르 대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박물관협회가 NGO를 지역별·주제별로 네트워크화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NGO를 서로 연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NGO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정부야말로 NGO를 하나로 묶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티에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퀘벡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NGO지만 해당 지방정부 또는 NGO 대표에게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은 대개 협회의 몫이다.

존 드 코닉(John De Coninck) 우간다 비교문화재단 대표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면서 교육 과정을 수정해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또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기부 공동체가 지지하거나 문화유산과 상충되는 미래를 위한 계획에 따른 해결책을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코닉 대표는 부족장을 도와 현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현장은 현대 맥락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재설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김광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제교류팀장은 한국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형문화유산은 굳건한 법률 기반이 마련된 경우 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이미 지난 50년에 걸쳐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쳐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을 자세히 다루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라디스 대표 주제 아래 발언 시간으로 이어졌다.

최희경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사무국장은 코닉 대표에게 NGO와 정부의 협력에 관한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정부는 지방정부인지 중앙정부인지 물었다. 최 사무국장은 또한 NGO가 참여해 관광객과 지역 공동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문화관광 산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코닉 대표는 동아프리카에서 문화는 지방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난 매우 소외된 분야라고 설명하면서 문화의 가치를 증명하고 문화를 통한 수입 창출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 문화 요소를 서비스 산업의 주류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 NGO의 주요 문제로 자원 부족을 꼽았다. 아프리카 NGO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기부를 통한 재원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티에르 대표는 전승 활동의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와 지방정부라면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명확한 존재 여부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정부는 정체성보다 공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 2 토론

파로가트 아지지(Foroghat Azizi) 타지키스탄 오담바올람 대표는 타지키스탄 문화부에서 근무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기록물디지털화와 디지털 복원 기술의 장점을 피력했다. 아지지 대표는 전문가 의견을 곁들여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영상물 제작을 제안했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Gaura Mancacaritadipura)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전 문자문관은 엘리스 허퍼(Elise Huffer) 태평양공동체사무국 문화자문관에게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지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서 도시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관해 질문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자문관은 가사우칼라야와(Gasaucalayawa)에게 전통 수공예 전수자들이 어느 정도 재정 혜택을 받았는지, 유재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장에게 한국이 국립무형유산원을 통해 국제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 허퍼 문화자문관은 일부 목록 작성법이 접근 단계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지식의 불법 복제와 남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전통지식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보호 활동을 언급했다. 허퍼 문화자문관은 도시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질문의 답변으로 현대 예술을 매개로 청소년들에게 전통 예술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체가 고유 문화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로 소셜미디어를 언급했다.

가사우칼라야와는 예술가들의 재정 혜택에 관한 질문에 대해 수공예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각자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축제, 시연으로 수입을 얻거나 박물관의 기념품 가게 등 여러 장소에서 수공예품을 팔아 수입을 창출한다고 답변했다.

유재은 과장은 한국 정부가 무형문화유산의 취약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를 지원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 사례를 면밀히 살펴 무형문화유산 보전에 한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과 관련하여 올빈 발렌틴(Olvin Valentin)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협회 청년위원장 대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NGO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정을 온전히 정부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발렌틴 대표에 따르면 이 NGO는 요금을 청구하는 상급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밖에도 공동체 기부금과 기금모금 행사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유재은 과장은 문서화 계획이 통상 정부 기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하향식 접근 방식이 상향식 접근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체가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두현 세계탈문화연맹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살아 있는 성질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NGO는 전문 지식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 일반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전문 지식 획득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NGO 스스로 재정 자립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안토니오 아란테(Antonio Arantes) 브라질 캄피나스 주립대학교 교수 주재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갔다.

오스만(Osman)은 교육 제도로 인해 문화가 소외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NGO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물었다.

에두아르도 페레스(Eduardo Perez) 필리핀 예술인협회 대표는 연행이 본래의 고유한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있는지 질문했다.

허퍼 문화자문관은 공개 연행에서 일부 현대 예술가들이 원작자와 기존의 고유한 개념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지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해당 예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과 문화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서 허퍼 문화자문관은 태평양 지역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교육학 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지만 축제 등 여러 행사가 실속 있게 제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와 교육 모두를 강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허퍼 자문관은 또 팀 커티스(Tim Gurtis)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의 질문에 대해 등록된 NGO가 더 쉽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세션 3 토론

헤버트 피케라(Hebert Pikela) 짐바브웨 가자트리스트 대표는 활성화의 정의를 미래의 필요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내렸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맥락뿐만 아니라 통시 관점에서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플랫폼과 포럼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접근성 제고 및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기법 모색을 위해 기술 투자와 연구 증대를 요구했다.

우르트나산 노로브(Urtnasan Norov)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센터 대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경제 발전은 물론 환경 및 문화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무형문화유산이야말로 창조 산업과 고유한 창조 정신을 보여 주는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가에는 각각의 고유하고 독특한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별 무형문화유산 NGO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경 사무국장은 전 세계의 살아 있는 유산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ICCN이 펼친 활동에 관해 소개했다. 최 사무국장은 2012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2012 World Intangible Heritage Festival)을 사례로 들고 다문화 축제가 문화의 다원주의, 대화 및 상호 이해를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조망했다. 또한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성의 이익을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축제의 평화 증진 역할을 언급하면서 2014년 10월 제2차 ICCN 축전이 이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 교수 주재로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코닉 대표는 함한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에게 한국 NGO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 의존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는 또한 아난야 바타차리아(Ananya Bhattacharya) 인도 콘택트베이스 대표에게 외지 관객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관광 패키지에 포함시킴에 따라 관광산업이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함한희 교수는 한국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NGO와 그렇지 않은 NGO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NGO는 재정이 빈약하지만 기부자들로부터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보통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NGO일수록 갈등과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관광산업이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주민들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조달 관련 질문에는 초기에는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도시 브랜딩으로 정비된 이후 특히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구리 대표는 가나와 같은 국가에서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사치로 보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정체성에 집중하는 문제에 관

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브리엘레 데시데리오(Gabriele Desiderio) 이탈리아 UNPLI 무형문화유산부 프로젝트 대표는 온라인 목록 시스템 구축 관련해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함한희 교수와 공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함 교수는 한국 연구자들이 저예산으로 온라인 목록 시스템 구축 방법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구리 대표의 질문에 관련해 데시데리오 대표는 자신의 NGO는 사회 참여에 주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정체성이 관광산업의 주안점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NGO는 밖으로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고 참여하도록 대중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노로브 대표는 유목문화 속에서 겪는 무형문화유산 보전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관광 기구가 무형문화유산 보전에 일조하지만 관광산업 자체가 일부 유목생활 방식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분임토론 1

첫 번째 분임토론은 조앤 오르 스코틀랜드 박물관협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레인 네릭(Jorijin Neyrinck) 벨기에 무형유산전문센터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네릭 대표는 NGO 네트워크 로드맵 작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GO 그루핑을 위한 잠재적 기준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2003년 협약과 증대되는 지역 간 상호 관련성, 재정적 제약,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등 외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네릭 대표는 유네스코 및 정부간위원회 보호 활동에 NGO의 참여 정도 및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가 NGO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준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 토론 참석자는 긴밀한 NGO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와 걸림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방안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두 그룹으로 나뉜 패널들은 30분씩 각자 구상한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두 그룹은 정보 공유, NGO의 입지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 등 NGO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달성 가능한 4가지 성과를 열거하였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제안된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공유하고 조력자와 실행자를 명확히 구분하며, 둘째, 여러 NGO의 상호보완 작용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NGO가 지니는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하며, 셋째,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는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패널들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NGO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외부 관찰기구를 창설하고, 프랑스어와 영어 이외의 기타 언어로 번역 작업을 진행하며, 가까운 미래에 무형유산 NGO의 역량 강화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의를 개최한다.

분임토론 2

두 번째 분임토론은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여러 아태지역 NGO 대표와 전문가가 발표자 및 토론자로 나서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 네트워크를 논의하였다.

본 세션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NGO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한 엠디 무츠클라스와미(MD Muthukumaraswamy) 인도국립민속지원센터 대표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김덕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교류협력팀장이 NGO 네트워크이라는 주제를 지역 차원에서 조망하였다.

토론은 에두아르도 페레스(Eduardo Perez)가 필리핀 무형유산의 보존과 발전에서 NGO가 담당할 역할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토론은 두 가지 주요 쟁점, 즉 NGO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유와 아태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조직들이 지식을 비롯한 여러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공동체와 정부 간에, 그리고 유네스코 등 여러 조직들 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 자금 지원의 기회도 높아질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사안별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작업량의 증대도 피할 수 있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대면회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기타 소셜 미디어(SNS) 등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파고들었다.

아태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법으로는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이 무형유산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석사학위(post graduate)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킹 센터인 ICHCAP를 거점으로 활동을 전개하면 새로운 연계 방안이 창출되고 새로운 기회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정보와 전문지식의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일례로 한국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추진해온 문화동반자(CPI) 프로그램을 통해 NGO와 기타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문화교육 증진에 힘써오고 있다.

NGO의 네트워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2003년 협약의 존립이 네트워킹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종합토론 요약

함한희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해 한국이 비록 역사가 오래 됐지만 무형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 NGO가 무형문화유산 보전에 직면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한국이 최근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을 구분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확대로 기존 법률의 부족한 점이 부각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의 보호 활동은 유형유산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형유산에 관한 더욱 활발한 국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자문관은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는 점으로도 이번 국제회의는 의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개별 국가의 발전 정도에서 기인한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발전 방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제기된 곤경 관련 향후 논의에 관심을 표명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앞으로 이에 관한 회의를 마련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2003년 협약의 다음 단계로 대학, NGO, 당사국, 기타 이해관계자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착수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NGO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했다.

허퍼 문화자문관은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이어 주는 NGO의 역할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무형문화유산 항목이 유형유산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기타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사이의 관계 형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질문했다.

유레인 네틱(Jorijin Neyrinck) 벨기에 무형문화유산전문센터 대표는 자신과 오르 대표가 언급한 네트워킹 로드맵에 관해 설명하고 로드맵 작성 시 NGO의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라디스 대표는 이삼열 사무총장에게 새로운 법률안 초안에 NGO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삼열 사무총장은 법률안은 시민 활동 지원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NGO 운동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코닉 대표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추진해 온 작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의 카테고리2 센터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른 카테고리2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유네스코가 지역별 카테고리2 센터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면서 모든 센터의 장이 참여하는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정옥 교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의 성과는 바타차리아 대표가 발표하고, 총평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했다. 회의는 그라디스 대표와 커티스 문화부장이 대한민국, 문화재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문화재단 등 기관과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